와니시 다리

하기오칸의 명소 중 하나로서 후시노 강을 가로지르는 와니시 다리는 강기슭에 놓여진 바위가 악어를 닮았다 하여 와니시(鰐石, 악어 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강의 수위가 상승하여 바위의 일부가 물에 잠겨 있을 때면 그 모양새가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기오칸은 야마구치 현 북부의 하기 시에서 야마구치 시의 중심부를 지나 야마구치 현 남부의 호후 시를 잇는 가도입니다. 이 가도는 조슈 번(지금의 야마구치 현)의 번주인 모리 가문의 영지를 연결하고 일본해와 세토 내해 간 수송과 거래에 이용하고자 1604 년에 정비되었습니다.

야마구치 시가 근대 도시로 발전하기 전에는 와니시 다리가 놓여진 장소가 마을의 변두리였습니다. 세토 내해를 배로 이동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와니시 다리를 건너 여행을 떠났으며,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이 다리를 건너 지금의 야마구치 시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조슈 번의 번주와 종자들은 도쿠가와 막부의 명을 받아 에도를 격년으로 왕래해야만 했습니다(산킨코타이 제도). 약 1,000km 거리의 에도(지금의 도쿄)로 이동할 때는 와니시 다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번주와 종자들을 배웅했을 것입니다.

사진작가들에게 인기 명소인 다리 옆 바위(와니시) 조형물은 시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위 앞에는 14 세기 교토로 향하던 중 이 지역에 들렀던 명나라의 사자가 지은 시를 새긴 석비가 세워져 있습니다.